목회의 프락

이동균 목사
해성교회 담임

"나입니까?"

봄이 늦었지만 매화가 지고, 화려한 벚꽃의 계절을 맞는다. 꽃들이나 인생의 시간표가 같아서 다 눈 위에나 바닷가 모래판 위의 발자국 같은 것이다. 눈 위를 지나는 선명했던 발자욱도 햇볕에 녹으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올해는 벚꽃잎들이 눈내리는 것처럼 날리는 계절이 사순절이고 종려주일과 수난주간이다. 수난주간에는 우리 삶을 돌아보는 질문을 하는 시간이다. 이 질문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회심-세례-성만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 늘 헛된 말과 유혹 속에 이끌려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살기도 한다. 십자가의 길에서 있었던 질문들을 다시 해 본다.

제자들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위해 "어디로 갈까요?"(막14:12) 하였다. 제자들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목적지를 몰랐다. 예정된 곳이나 늘 가던 익숙한 곳이 없었다. 넘는명절(유월절)을 앞두고 "어디로 가서 무슨 준비를 할까요?" 긴장된 물음이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와 '무슨 준비를 바라십니까?' 는 우리의 지금-여기서의 물음이다. 주께서 예정하신 뜻을 늘 물어야 한다. 내가 좋아하고 편한 곳이나 익숙한 곳에 안주하는 일은 아니다. 알지 못하는 곳, 불편한 곳일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딜까 묻는 기도를 해야 한다. 무익한 종으로서 갈 곳도 준비할 일도 알 수 없기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께서 "여러분 중의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하셨다. 제자들은 일제히 자신을 의심하시지 않는가 하여 "나입니까? 저는 아니지요?"하며 자신을 가리켰다. 나는 언제나 약하고 의지가 굳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다짐을 하지만 지켜내지 못하고 나약했다. 예수께서 "너는 나를 넘겨 줄 사람이다."하시자 제자들도 베드로도 "나는 아닙니다."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나는 아니겠지요?" 힘주어 물었다. 오늘의 확신이나 자신감은 오래 갈 수 없다. 나도 수없이 경계를 넘나들며 신앙생활과 삶의 흔들림을 경험하였다. 가룟인 유다는 처음 자신의 확신으로 제자직을 감당하였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였다. 나도 십자가의 길을 벗어날 수 있다. 겸손히 "나"를 점검해 본다.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셨다. 베드로는 자신의 순서가 오자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물었다. 당시에는 먼지 많은 길을 오갔기에 발의 정결함이 필요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신의 오염된 발을 씻기심을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발을 거둬들였다. "나는 못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내가 그대를 씻어 주지 않으면, 그대는 나와 함께할 몫이 없어요." 하셨다. 그 물음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앞에 두고,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과 결속을 더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묻고 확신을 가질 기회였다. 제자의 길은 의문을 갖고 묻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 사순절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수련의 시간이기에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사순절은 이런 질문 속에서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길을 굳건히 해야 한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제자의 길에서 실패를 하였다. 베드로는 반복되는 맹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피곤한 몸이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을 못하였다. 예수께서 피땀 흘리는 기도 시간에도 잠에 빠졌다. 예수께서 붙잡히셨을 때도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모두 달아났다.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다. 제자의 길을 다짐하였지만 실패한 제자도였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질문의 시간을 갖고 신앙과 삶의 길을 바르게 찾아야 한다. 근래 교회는 일부이지만 전광훈과 손현보 목사 등으로 대표하는 이들의 잘못된 정치참여와 사회적 물의가 교회에 엄청난 폐해를 끼쳤다. 사악한 암군정치를 하는 무리들을 추종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교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들이 모두 탄핵을 당했다. 부끄러운 일부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몸된 전체 교회를 욕되게 하였을 뿐이다.

그 때 예수님을 환영하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군중들이나 제자도의 실패는 나의 모습이다. 이번 수난주간은 기도의 질문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 잘못 걸어온 믿음과 삶의 아픔과도 진지하게 마주서야 한다. 늘 잘못과 실수에서 돌이키는 용기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변화의 새 시작이다. 사순절의 용기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종이다. 닭이 우는 소리 앞에서 후회하고 울었던 베드로는 나의 거울이다. 실수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부르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품으시고, "평안한가?" 위로와 회복을 벌써 준비하신다. 이제 우리가 다시 질문하자. "나입니까?" 그가 부활의 기쁨을 만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주의 추천음반

출판사 : 하늘샘 (:한국)

청장년 성도를 위한 큰글씨 큰은혜

경배찬양 500 (스프링 찬양악보집)

경배 찬양 500의 특징

1 눈에 띄는 큰글자 가사와 큰 악보를 사용하여 어른들께 참 좋습니다.
2 장년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활용하시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3 한국교회에서 가장 널리 불리어지는 곳들을 선정하여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주제별, 코드별, 가사첫출 및 제목별로 분류하여 원하는 곡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헨델의 '메시아'

대한민국 개국이래 2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던 정국이 이제 마무리 되는 듯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잠을 설치며 이 나라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에 다시 불타는 나라가 되고,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국민과 성도들 그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곧 다가올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 부활을 맞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 기쁨으로 동참 하기 위해서 그 분의 고난을 더 생각해 보고 찬송가 중에 3곡을 소개 해 드립니다.

1.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라는 찬송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곡입니다. 영어 원제는 "The Old Rugged Cross"로, 1913년 미국의 작곡가이자 작사가인 조지 베나드(George Bennard)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영적인 여정과 깊은 신앙에서 비롯된 이 곡은 기독교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희생을 찬양하며,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조지 베나드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왔지만, 그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웠던 그는 십대 시절부터 자립하며 고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에 깊이 매료되어 자신을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찬송가 "The Old Rugged Cross"는 바로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이 곡은 십자가를 향한 깊은 헌신과 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조지 베나드가 작성한 가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찬양하며 믿음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가사는 원곡의 신학적 메시지와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이 번역 과정에서는 곡의 선율과 리듬에 맞게 조화로운 번역을 위해 원문에 담긴 영적 의도를 신중히 고려했습니다. 오늘날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는 한국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 시간에 자주 불리며, 성도들에게 신앙적 깊이를 제공하는 찬송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2. "내 주를 가까이" 작곡: 윌리엄 H. 도드 작사: 노아 월로윅

"내 주를 가까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와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자 하는 신앙의 간절함을 표현한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곡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한 교훈과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탐구하게 합니다.

이 곡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 가까이 느끼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찬송가는 고난을 묵상하는 중요한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고난 주간 동안 자주 불려지며, 성도들은 이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있는 신앙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는 그리움과 사랑의 표현이 녹아 있는 찬송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을 다잡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간절히 바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성도들에게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 곡은 교회 예배에서 단순히 음악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신앙적인 결단과 변화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3. "예수 나를 위하여" 작곡: 윌리엄 H. 도인 작사: 엘리자 스콧

"예수 나를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찬송입니다. 이 곡은 윌리엄 H. 도인이 작곡하고, 엘리자 스콧이 원작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이 곡은 고난 주간에 자주 불려지며,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가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찬송은 신자들에게 구속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는 예배의 순간마다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묵상하는 이 곡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또한 이 곡은 고난 주간에 자주 불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묵상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깊은 신앙의 여정을 돕는 중요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고난 찬양의 중요성

이 세 곡의 찬송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난 찬송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성도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찬송을 통해 성도들은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난 주간에 불려지는 이 찬송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이 개인의 신앙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곡들을 통해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삶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깊은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분의 고난을 삶으로 이겨내며 통과할 때만 온전한 의미에서의 부활이 존재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신 미션21 애독자 여러분이 큰 은혜 속에서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시기 원합니다.

이동영
아이노스 찬양선교사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21 홈페이지 ims21.tv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미션21은 종이신문이 갈 수 없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촬영 '손 안의 신문'

① 언제 어디서나 정보검색 가능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기만 하면 종이신문의 모든 콘텐츠와 기사 및 광고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검색 가능합니다.

② 하루 더 빨리 보는 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이신문보다 하루 앞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신문이 배포되는 토요일에 앞서 금요일 저녁에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된 기사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③ 지난 기사 · 일반 정보 · 성경말씀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기사 검색은 물론, 다른 포털로 이동하지 않고도 일반 정보와 성경말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